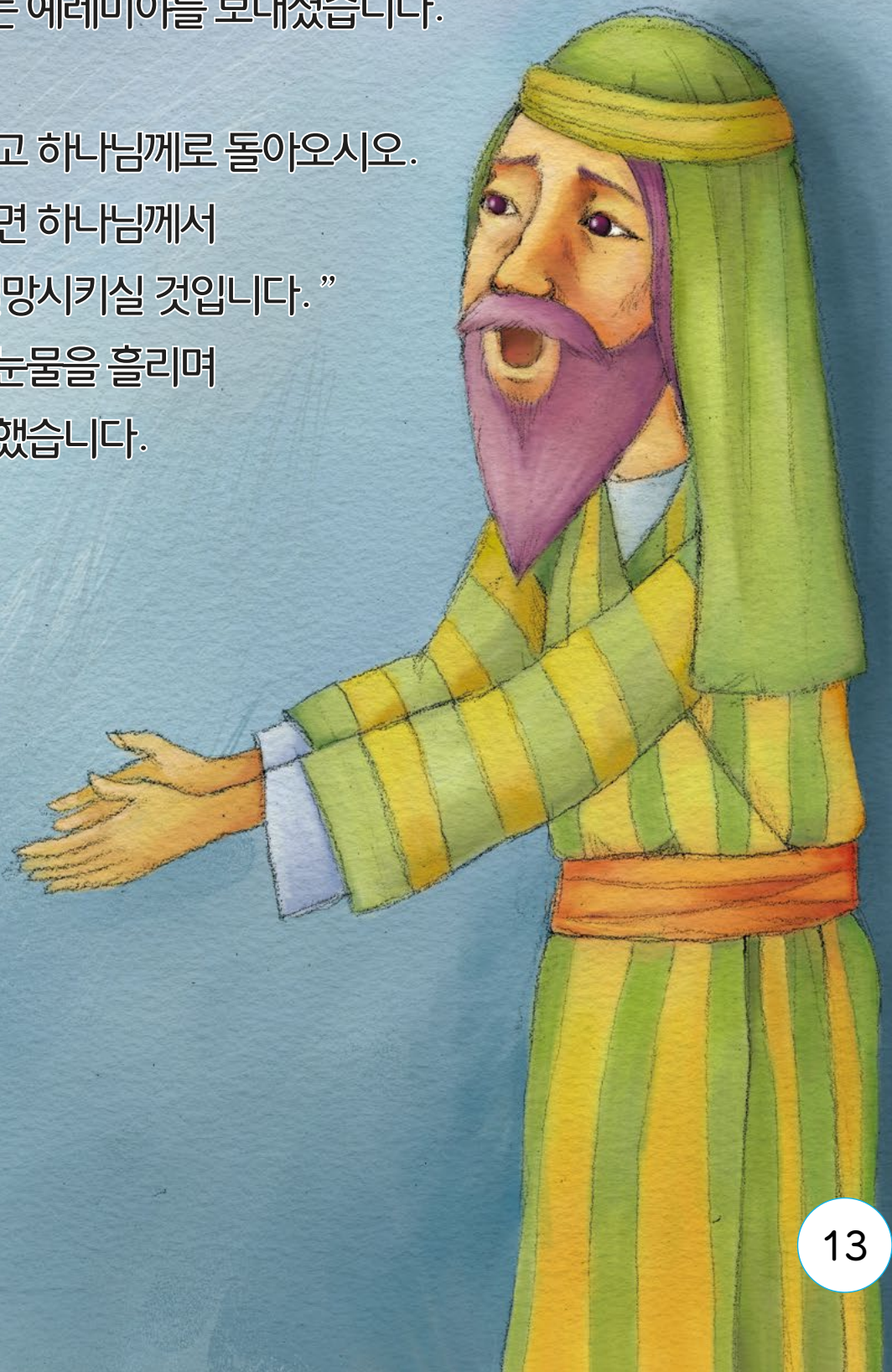


## 15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

유다 백성은 많은 우상을 섬기며 더욱 죄를 지었습니다.  
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.  
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유다 백성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.



“예레미야야,  
가서 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거라.”  
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.  
“백성이여,  
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.  
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 
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.”  
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 
간절하게 말했습니다.



그러나 악한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

“우리가 망한다고..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, 듣기 싫다!”

백성은 예레미야를 잡아 토굴에 가뒀습니다.

또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.



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를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.



# 교제해요

1. 예레미야는 왜 슬퍼하였나요? (      )



① 조그만 나라에  
태어난 것이 싫어서



② 백성들이 멸망할  
것을 알았기 때문에



③ 몸이 많이  
아팠기 때문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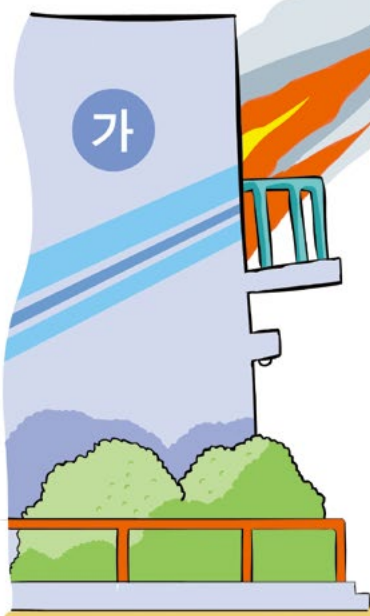
2. 밑에 문장의 빈칸을 보기에서 골라 완성해 보세요.

보기) ① 죄 ② 욕심 ③ 화 ④ 섬겼다 ⑤ 칭찬했다 ⑥ 괴롭혔다

말씀을 들은 백성은  를 돌이키지 않고,

오히려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

3. 영수는 길을 걷다가 이웃집 옥상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발견했어요.



“불이야! 불이야!” 영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.

그런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수의 목소리가  
들리지 않았어요. 지금 영수의 마음은 어떨까요?

내가 영수라면 어떻게 할까요?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 
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.

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 
가져요.

# 암송

암송을 따라 써요.

내가 너를 누구에게  
보내든지 너는 가며  
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 
너는 말할지니라  
(예레미야 1장 7절)

## 기도하는 어린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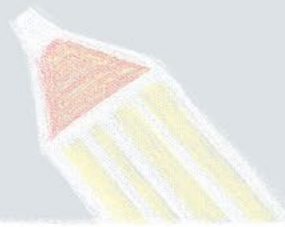


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하겠어요.

나의  
기도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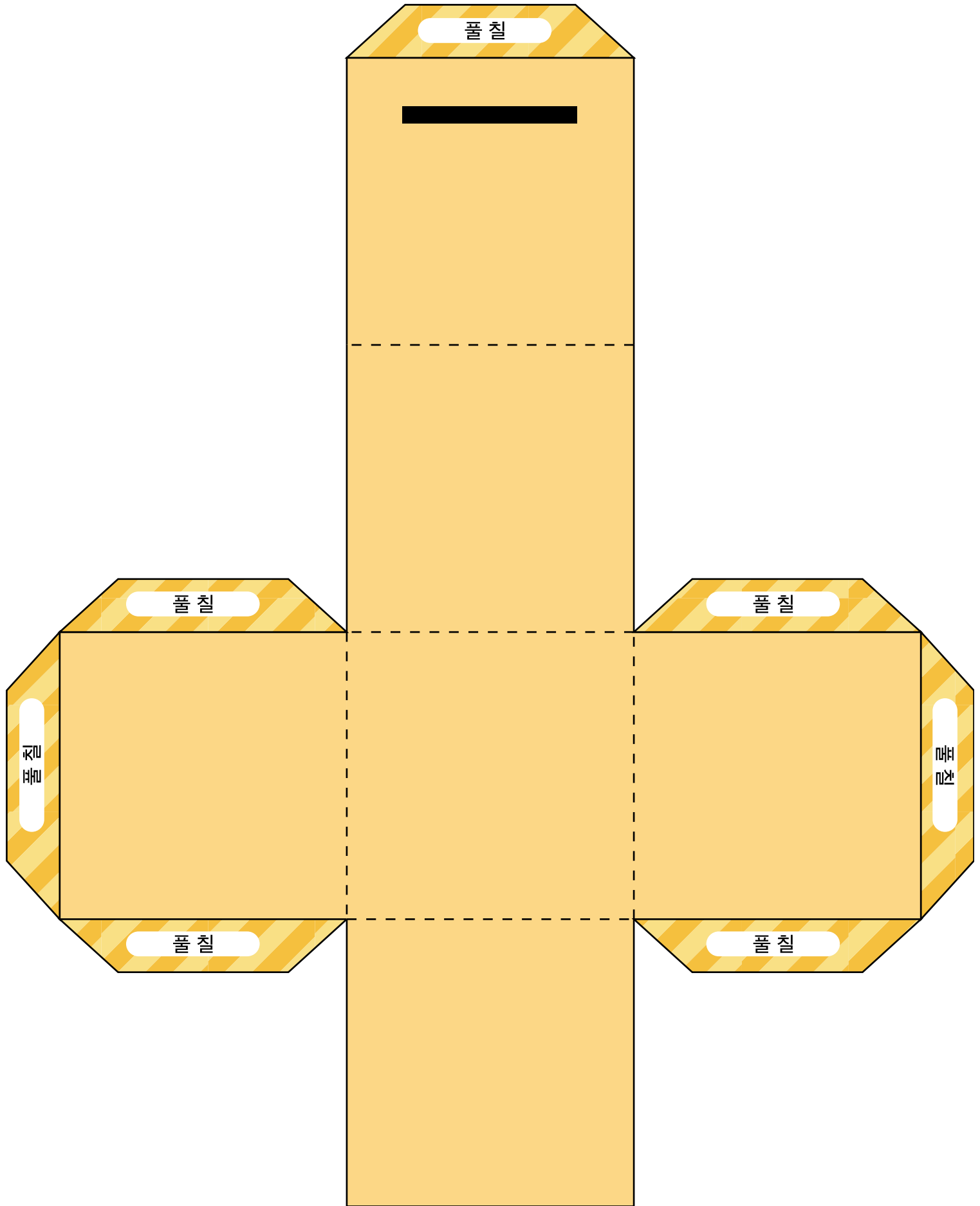
---



## 줄 만들기

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.  
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튼튼한 줄을 만들어 주세요.  
(털실, 노끈, 리본 끈 등을 붙여 꾸며 보세요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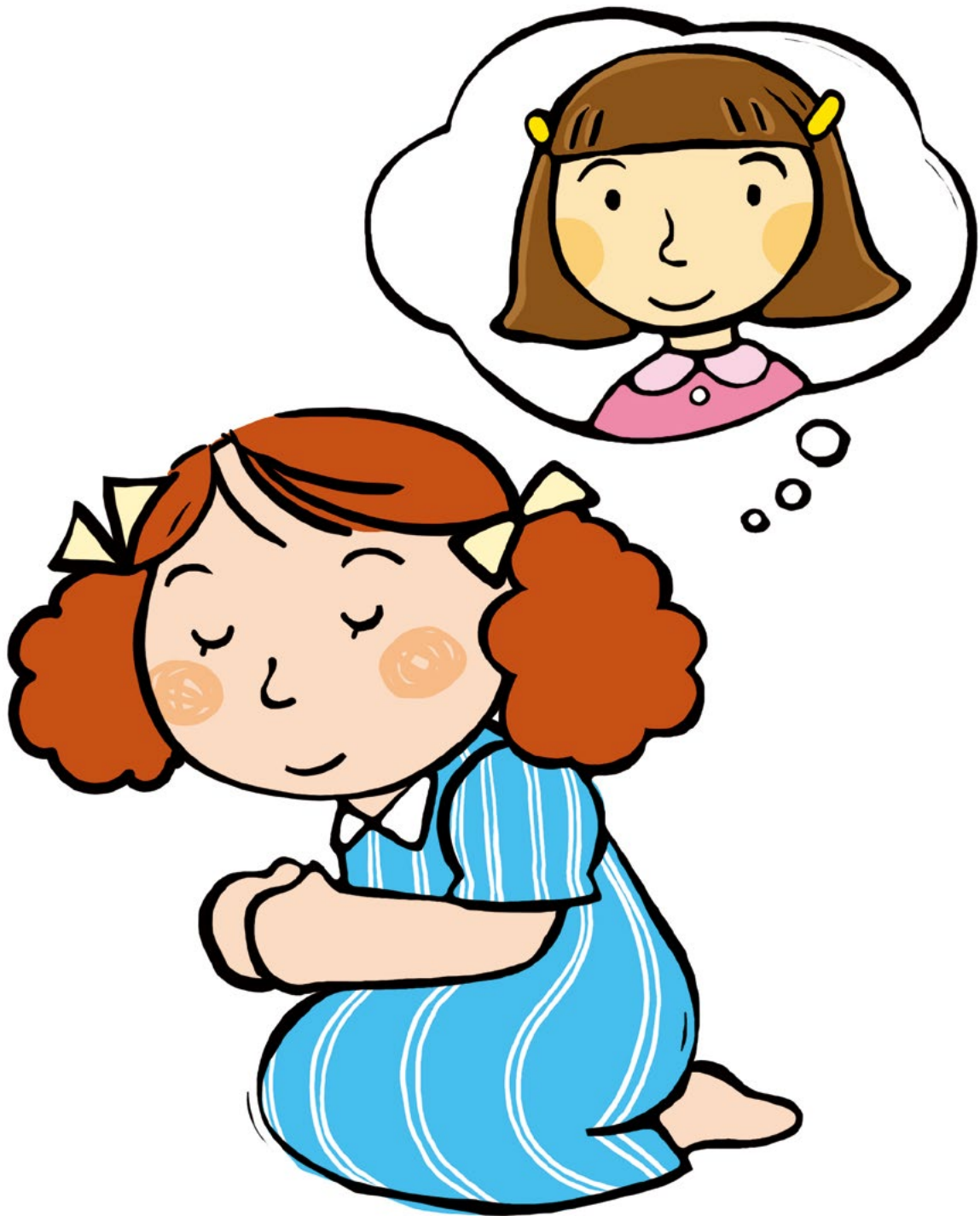






# 기도함 만들기

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를 부르세요.  
기도함을 만들어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 넣으세요.  
그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.



선생님께

부모님께